

韓國抄錄誌의 特性

崔 成 眞*

1984년에 발행된 本誌 第6輯에 필자는 당시의 한국초록서비스의 技術現況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금년에 필자는 다시 類似한 範圍와 內容의 조사를 행하여 한국초록서비스의 變化 또는 발전의 實相을 밝혀 보려고 한다. 금년 조사의 실제적 意圖는 초록서비스의 주요 道具인 이 나라 초록지의 발전과정을 10년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에 걸쳐서 觀察하고 그 持續的 特性이 어떤 것인지를 定義하려는 데 있다. 한 나라 초록지의 일반적 특성을 어느 해에 實行한 한번의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定義하기는 어렵다.

韓國抄錄서비스의 技術現況을 조사한 결과 부분은 금년 여름 “한국 문헌정보학회지”에 발표하였으므로(최성진, 1994) 여기서는 지난 10년 동안에 관찰된 한국초록지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만 制限的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그러나 本稿의 論議가 대부분 위의 記事와 같은 資料에 根據한 것이므로 그것을 참고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研究開發投資가 해마다 증가하여 최근 한국에는 많은 연구보고문헌이 생산 축적되고 있지만 그것을 각분야 연구자와 기술자들에게 신속히 알려서 효과적으로 이용하게 해야 할 초록지는 그 種數도 적고 내용 또한 貧弱한 형편이다. 한국초록지의 내용을 충실히 하고 이용자들에게 研究速報媒體로서 더 유용하게 하려면 먼저 그 일반적 특성이 어떤 것이며 長點과 短點은 어떤 것인지를 定義할 필요가 있다. 本稿는 그러한 定義를 試圖하려는 것이다.

情報奉仕는 그것을 출현시킨 국가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발전한다. 결과적으로 각국의 정보봉사나 그 도구인 초록지의 형태에도 多少間에 差異가 나타난다. 本稿는 그러한 觀點에서 世界の 普遍的 抄錄誌 形態에서 벗어나는 韓國抄錄誌의 特性을 밝히

*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는 데 論議를 集中시키려고 한다.

I

韓國抄錄誌에 대한 論議는 그것이 모든 知識分野에서 1종 이상 발행되고 있는가 하는 觀點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한 順序일 것이다. 이 나라 각 분야의 초록서비스에 대한 要求를 고루 充足시키려면 圖書分類表(本稿에서는 韓國十進分類表를 사용한다)上 各 綱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적어도 1 종의 초록지가 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모두 89개 綱中 15개 綱分野에서만 초록지가 발행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분야(74개 분야, 83.1%)에서 이 나라 연구자와 專門職 종사자들이 적절한 초록서비스를 받지 못하면서 활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초록지가 발행되고 있는 15개 분야를 제외한 74개 분야의 연구자들이 국내에서 발표되는 自己 分野 또는 關心分野의 연구성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종 학술잡지나 報告 文獻을 직접 하나 하나 찾아 읽어야 한다.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연구자들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며 또 비록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문헌조사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되어 결과적으로 해당 분야 연구활동의 生産性은 떨어질 것이다.

한국에는 여러 분야 문헌의 초록을 한 책 속에 收錄한 19종의 綜合抄錄誌가 있는데 그것이 자기 분야의 專門抄錄誌가 없는 74개 분야에 대하여 초보적 抄錄서비스나마 제공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19종의 綜合초록지의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위의 기대가 헛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9종의 綜合초록지중 14종(73.7%)은 대학의 석사·박사학위논문 초록집이며 2종은 특정 기관에 입수된 특정 지역과 특정 형태의 출판물 초록집, 2종은 특정 기관의 학술연구 조성비로 수행된 연구과제 보고서 초록집, 나머지 1종은 특정 대학의 연구소가 개최한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초록집이다. 결국 19종의 綜合초록지 가운데 여러 主題分野의 연구성과를 충실히 要約하여 전국의 연구자와 전문직 종사자에게 速報하는 진정한 의미의 綜合초록지는 없다. 요컨대 한국의 연구자들은 15개 주제분야에서만 국내 연구성과에 대한 초록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74개 주제분야에

서는 초록서비스라는 것을 거의 받고 있지 않는 것이다. 모든 분야의 전문 초록지를 발행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大單位 主題分野別로 최소한 1종의 종합초록지를 발행하거나 더 넓은 주제의 한 두 초록지를 발행하여 초록서비스에서 疎外되는 분야가 한 곳도 없어야 할 것이다. 학문의 각 분야는 유기적으로 상호 관련되어 있으므로 한 나라의 효율적 학문발전은 처지는 분야 없이 모든 분야가 고르게 均衡을 이루며 발전되어야 한다. 초록서비스가 없거나 不實하여 각 분야 연구자들이 자기 분야의 最近 研究成果를 效率的으로 把握할 수 없는 環境에서는 그런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한국에서는 여러 주제분야의 초록기사를 수록하는 종합초록지 19종을 제외하면 53종의 초록지가 15개 주제분야에서 발행되고 있다. 外形上으로 이 15개 분야의 연구자들은 초록지를 통하여 최근의 자기 분야 연구성과에 쉽게 接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이 15개 분야에 대한 초록서비스가 각 해당 분야 안에서 고르게 제공되고 있는가? 혹 그 분야 안에서 偏重하고 걸친 부분은 없는가? 그런 비능률이 있다면 당연히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발행되는 15개 분야 53종의 전문초록지가 分布된 상태를 보면 사회과학 분야의 10종, 순수과학 분야의 15종, 기술과학 분야의 27종, 문학 분야의 1종으로 되어 있다.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분야의 세 분야 초록지가 52종으로 15개 분야에서 발행되는 초록지 53종의 거의 전부(98.1%)를 차지한다. 순수과학과 기술과학 분야의 초록지만으로도 전체 53종의 79.2%를 차지한다. 이로써 한국에서 발행되는 초록지는 소수 주제분야(9개 主類중 3개 主類)에 偏重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발행되는 53종의 초록지중 거의 半에 해당하는 25종(47.2%)은 전기공학(8종), 농학(7종), 경제학(5종), 물리학(5종) 분야의 4개 분야에서 발행되고 있다. 이것은 주제를 더 細分하여 觀察하더라도 한국의 초록지가 少數 分野(15개 綱中 4개 綱)에 甚하게 偏重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초록지가 비교적 많이 발행되고 있는 분야들의 초록지도 주제상으로 혹은 收錄 對象 文獻上으로 매우 세분되어 있는 것이다. 구체적 예로 전기공학 분야에서 발행되는 8종의 초록지중 5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서 발행되

4 한국비블리아 제7집

는 전자, 통신, 반도체 분야의 特許文獻에 대한 초록집이고, 2종은 같은 연구소의 기술정보센터에 입수된 문헌에 대한 초록집이고, 1종은 한국전기연구소의 연구원들이 발표한 학술논문 초록집이다. 즉 전기공학 분야에서 8종의 초록지가 발행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 7종은 전기통신 분야의 초록집이고 나머지 1종도 한 연구소의 연구실적에 대한 초록집에 지나지 않으므로 전기공학의 餘他 分野 研究者들은 사실상 국내 연구성과에 대한 초록서비스의 惠澤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7종의 초록지를 발행하고 있는 農學 分野의 경우도 사정은 類似하다. 즉 7종중 4종은 매우 세분된 주제분야(作物保護, 土壤肥料, 蠶業, 人蔘)의 초록집이고, 2종은 대학 부설 농학연구소의 연구실적에 대한 초록집이고, 1종은 농학 분야 박사학위 請求論文에 대한 초록집이다. 결국 농학의 많은 다른 분야 연구자들은 국내의 연구성과에 대한 초록서비스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5종의 초록지를 발행하고 있는 경제학 분야의 초록지중 3종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국토개발관계 연구과제 보고서 초록집이고, 1종은 消費관계 석사·박사학위 청구논문에 대한 초록집이고, 1종은 경영학 분야 석사·박사학위 청구논문에 대한 英文抄錄集이다. 5종의 초록지를 발행하고 있는 물리학 분야의 초록지는 에너지와 資源관계 연구과제 보고서 초록집 뿐이다.

대부분의 주제분야에서 한국의 연구자들은 초록지를 통하여 국내의 최근 연구성과에 대한 초록서비스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비교적 많은 초록지를 가지고 있는 주제분야에서도 초록지의 주제나 수록된 내용이 매우 制限되어 있어 극히 소수의 해당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 연구자들은 자기 분야의 전문 초록지를 1종도 가지지 못한 분야의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국내 연구성과에 대한 초록서비스에서 거의 疎外되어 있다. 한국에서 발행되는 72종의 초록지는 극히 제한된 분야의 극히 制限된 수의 연구자들에게 奉仕하고 있을 뿐이다.

II

도서관은 오래전서부터 입수 문헌의 초록을 작성하여 그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왔으며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도서관과 정보봉사기

관이 있다. 그러나 현대에는 대부분의 초록지가 도서관 밖에서 특정 도서관 이용자가 아니라 不特定多數利用者를 對象으로 하여 발행되고 있다. 현대의 주요 초록지 발행기관은 學會와 協會, 연구기관, 대학, 산업기관, 정부기관, 출판사, 도서관, 정보봉사기관 등이다. 이 중에서 어느 기관이 어떤 초록지를 얼마나 발행하느냐는 그 나라의 傳統과 慣習에 따라 多少間 差異가 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떤지를 살펴본다.

한국에서는 초록지가 주로 연구기관과 대학에서 발행되고 출판사, 산업기관, 정보봉사기관, 정부기관, 學術振興機關, 도서관, 학회 등에서 발행된다. 여기서 대학은 연구기관으로 分類될 수 있으므로 한국의 초록지는 대부분(54종, 75.0%)이 연구기관에서 발행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연구기관에서 발행되는 초록지는 少數라는 사실(Borko; Bernier, 1975)에 비추어 이것은 특이한 현상이다. 또 세계적으로는 학회와 협회에서 발행되는 초록지가 全體의 半 以上을 차지하나(Keenan; Elliot, 1973) 한국의 경우는 단지 1종(1.4%)을 발행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단순히 수량적으로만 보면 초록지 발행에 있어서 학회와 협회의 寄與는 아주 微微하다. 商業出版社가 발행하는 초록지도 세계적 평균보다 낮다. 세계적으로 상업출판사가 발행하는 초록지는 전체 초록지에 대하여 약 10%의 比率를 차지한다(FID, 1974).

발행기관별로 초록지의 種數를 적어보면 거기에는 브래포드의 分散法則이 분명하다. 즉 44개 초록지 발행기관중 2개 기관(4.5%)이 발행하는 초록지가 11종(15.3%)이고, 7개기관(15.9%)이 발행하는 초록지가 26종(36.1%)이고, 16개 기관(36.4%)이 발행하는 초록지가 44종(61.1%)이다. 44개 초록지 발행기관중 半이 넘는 28개 기관(63.6%)은 1종씩을 발행하고 있을 뿐이다. 요컨대 한국의 초록지 발행활동은 소수 기관에 의하여 集中的으로 行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2종 이상의 초록지를 발행하는 16개 기관은 대학을 包含하는 연구기관이다. 적어도 外形上 연구기관은 한국의 초록지 발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Ⅲ

초록지는 그 基準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으나 그 用途와 초록기사의 내용에 따라 概要抄錄誌와 記述抄錄誌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문헌 내용의 주요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독자에게 연구된 문제의 성격과 범위, 연구의 목적과 방법, 주요 데이터와 발견된 사실, 결론 등을 비교적 詳細하게 알리며, 후자는 개요초록에 포함시킬만한 사항들을 다시 추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되는 몇가지를 가려내어서 보통 電報文體로 簡潔하게 독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요초록지는 연구자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 原文을 읽지 않고도 자기 분야의 최근 연구성과들을 대충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우며, 기술초록지는 독자들이 초록된 문헌의 존재를 알고 그 문헌을 읽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돕는 수준의 초록지이다. 그렇게 두 종류의 초록지는 용도가 서로 다르고 補完的 關係이므로 각 분야에 적어도 1종 이상 존재하는 것이 이용자 편에 바람직하다.

한국의 상황을 살펴본다. 한국에서 발행되는 초록지는 대부분(81.9%)이 개요초록지이며, 기술초록지는 전체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18.1%). 그러므로 도서분류표상 89개 연구분야중 초록지가 발행되고 있는 15개 분야에서 활동하는 비교적 幸運의 연구자들도 어떤 논문이 최근 자기분야에 출판되었으며, 그것을 읽을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려고 할 때 대개의 경우 기술초록지의 不在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개요초록지에 依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초록지의 종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초록지에 자료가 포괄적으로 수록되지 않는다면 종수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어떤 경우에는 특수한 종류와 형태의 문헌만을 수록한 많은 초록지보다 어느 한 분야에서 여러 종류와 형태의 문헌으로 발표된 연구성과들을 包括적으로 收錄한 1종의 초록지가 독자에게 더 有用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에서 발행되는 초록지의 경우를 살펴본다. 72종의 초록지중 두 종류 이상의 자료를 收錄한 綜合的 性格의 抄錄誌는 13종(18.1%) 뿐이고 나머지 59종(81.9%)은 특정 종류의 資料만을 收錄한 초록지이다. 즉 학위논문 초록지가 25종(34.7%), 연구보고서 초록지가 20종(27.8%), 학술잡지

사 초록지가 7종(9.7%), 特許抄錄誌가 7종(9.7%)이다.

어느 한 종류의 자료만을 수록한 초록지가 無益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종합초록지보다 언제나 덜 유용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가령 특허초록지 이용자는 종합초록지가 아무리 충실하더라도 특허초록지를 따로 가지고 싶어 할 것이다. 특허문헌은 과학기술문헌인 동시에 법률문헌이라는 특수문헌이고, 특허초록 이용자는 특허문헌 외의 학술잡지기사, 연구보고서 등 관련 주제 문헌에 통상 관심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위논문, 연구과제보고서, 학술잡지기사에 대한 초록지를 각각 따로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三者가 모두 연구 결과로 얻은 발견이나 발명을 記述한 것이며, 그런 발견이나 발명은 한 곳에서 찾을 수 있게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발행되는 초록지중에서는 학위논문 초록지의 종 수가 가장 많다(25종, 34.7%). 이것은 어느 모로나 正當化 되기 어렵다. 학위논문은 학생들이 수행한, 어떤 의미에서 다소 未熟한 연구의 보고서이며, 그 중에서 우수한 것은 후에 학술잡지기사로 출판될 것이므로 그런 학위논문에 대한 초록지가 다른 모든 초록지보다 더 많이 발행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자세히 살펴보면 학위논문 초록지가 많이 발행되는 것은 주로 각 대학에서 그 대학이 授與한 석사·박사 학위 청구논문에 대한 초록지를 따로 발행하는 慣行에서 비롯된 것이다. 학위를 수여하면서도 아직 학위논문 초록지를 발행하고 있지 않은 대학이 많이 있으므로 이 관행이 계속된다면 학위논문 초록지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 慣習이 讀者의 便益을 고려하여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독자는 대개의 경우 학위논문에 포함된 사실에 관심이 있으며, 그 학위논문이 나온 大學名에는 큰 관심이 없다. 그러므로 학위논문 초록지는 각 대학이 따로 발행할 것이 아니라 대학 밖의 어느 한 기관, 예컨대 한 출판사가 전국의 학위논문을 收集하여 하나의 종합 학위논문 초록지를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것이 다른 나라에서도 하는 방법이다.

초록지는 각 연구분야에 종합적 성격의 것이 1종씩 발행되는 것이 理想的이다. 세계적으로 학회와 협회에서 발행하는 초록지가 전체의 半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는 국내 單一分

野의 연구성과를 알리는 초록지가 21종으로 가장 많기는 하나 전체 72종에 비추어 볼때 그 29.2%에 지나지 않는다. 국내 전분야 연구성과에 대한 초록지 11종을 합하더라도 44.5%에 지나지 않는다. 이 두 範疇의 초록지는 집중적으로 補強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단일 간행물에 대한 초록지(2종, 2.8%)와 국내 단일 연구소의 실적에 대한 초록지(19종, 26.4%)도 無用한 것은 아니지만 그 利用 價値가 다수 독자에게는 制限的인 것이다. 外國資料에 대한 초록지는 국내 자료에 대한 초록서비스가 기본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수준으로 만족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국내 연구실적에 대한 초록서비스의 改善에 努力과 資源을 집중시키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외국 자료에 대한 초록서비스는 해당 국가의 초록지나 국제적 초록지를 수입하여 의존할 수 있다.

IV

현재 한국에서 발행중인 초록지는 단지 1종의 例外를 제외하고 모두 지난 25년 내에 創刊된 비교적 새로운 초록지이다. 72종의 조사대상 초록지중 1984년에서 1992년까지 終刊된 8종의 초록지를 제외한 64종이 현재 한국에서 발행되고 있으며, 이 64종의 초록지중 32종(50.0%)은 지난 5년내에 創刊되었고, 46종(72.0%)은 10년내에, 54종(84.4%)은 15년내에, 59종(92.2%)은 20년내에 創刊되었다. 한국에서 발행되는 초록지는 25년 전부터 加速的으로 증가되어 왔다. 즉 20년 전에 5종이던 초록지가 그 5년 후에는 10종으로 이전 對比 100.0% 늘어났고, 다시 5년 후에는 18종으로 이전 대비 80.0% 늘어났고, 다시 5년 후에는 32종으로 이전 대비 77.8% 늘어났고, 다시 5년 후에는 64종으로 이전 대비 100.0% 늘어났다. 이 기간은 한국에서 연구개발투자,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가 急增하고, 연구개발 종사자가 급증하고, 따라서 연구보고문헌이 급증한 시기와 일치한다 즉 급속한 초록지 증가 현상은 이 기간중의 초록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인식의 증가를 反映한 것이며, 이러한 증가현상은 앞으로도 초록서비스 수요가 어느 수준으로 충족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 예상된다.

1984년에서 1992년까지의 期間中에 終刊된 8종의 초록지중 6종(75.0%)은 創刊 後 2년내에 중간되었고, 4종(50.0%)은 창간호만 내고 그 해에 중간되었다. 대부분의 초록지는 축차간행물의 형태로 발행되며 영구히 발행할 의도로 시작하나 다른 축차간행물과 마찬가지로 발행 초기에 泡沫現象을 나타낸다. 한국에서 발행되는 초록지의 경우 그러한 현상은 2년 동안에 일어난다. 즉 2년이 지난 초록지는 발행이 長期間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V

학위논문이나 학술잡지기사의 末尾에 붙인 外國어 초록을 그대로 수록한 초록지는 그 言語를 모르는 독자에게 無益한 것이다. 한국에서 國內用으로 발행되는 초록지의 바람직한 언어는 물론 한국어이다. 이것은 外國어로 출판된 문헌에 대한 초록지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독자가 모르는 外國어로 출판된 논문이라도 그 抄錄記事가 아는 언어로 작성된다면 多少間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적어도 그 논문의 翻譯을 의뢰할 필요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한국에서 발행되는 초록지의 언어에 대하여 살펴본다.

한국에서 발행되는 72종의 초록지중 한국어로 된 것이 34종(47.2%)으로 전체의 半에도 미치지 못하며 나머지 38종은 外國어로 된 것이 19종(26.4%), 한국어와 外國어를 混用한 것이 19종(26.4%)이다. 이 38종의 초록지가 外國어로, 혹은 한국어와 外國어가 혼용되어 발행되는 것은, 國內 연구성과를 外國 연구자들에게 紹介할 意圖로 발행되는 3종(2.6%)의 영문 초록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초록지 發行 經費를 줄이기 위하여 論文 末尾에 붙인 外國어로 된 著者抄錄을 그대로 編輯하여 발행하기 때문이다. 초록지 독자중에는 外國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므로 外國어로 된 초록지가 余的으로 無用한 것은 아니지만 外國어로 된 초록지가 많은 한국 독자에게 不便을 줄 것은 분명하다.

한국에서 발행되는 19종의 外國어 초록지는 영어와 일본어만으로 되어 있으며, 1종의 일본어 초록지를 제외한 18종이 영어로 되어 있다. 한국에서 발행되는 外國어 초록지에 있어서 영어의 偏重現象은

한국어와 외국어를 혼용하여 발행하는 초록지 속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 範疇에 속하는 19종의 초록지중 1종만을 제외하고 모두가 한국어와 영어를 혼용한 것이다. 이러한 영어 편중현상은 한국의 초록지 이용자 즉 각 분야의 연구자와 전문직 종사자들이 영어를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前提하지 않는다면 정당화 되기 어렵다. 설사 많은 연구자들이 영어를 읽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영어 偏重現象으로 인하여 초록지 이용에 있어서 불편을 겪을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며, 초록지 발행자들은 그 소외된 연구자들도 나라의 소중한 연구자들임을 기억하여야 한다. 기존 외국어 초록지는 장차 한국어 초록지로 變換되어야 할 것이다.

VI

發行頻度는 초록지의 有用度를 決定하는 중요한 要素이다. 초록지는 어느 분야에서 최근에 출판된 연구실적을 요약하여 해당 분야의 연구자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速報하는 媒體이므로 그 속보기능이란 관점에서 발행빈도가 높은 日刊, 週刊, 隔週刊 등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초록지는 어느 분야의 연구실적을 한 데 모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데 모으는데 시간이 所要되고 또 내용을 요약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일간, 주간으로 발행되는 초록지는 거의 없다. 한편 年刊, 隔年間 抄錄誌는 한 데 모으는데는 適合하나 초록지의 다른 중요한 기능인 속보기능이 매우 약해져서 유용성이 적다. 결국 세계의 초록지 발행기관들은 속보성도 살리고 연구실적을 한 데 모으는 기능도 살리는 線에서 妥協하여 주로 隔週刊, 月刊, 隔月刊, 季刊으로 초록지를 발행한다. 不定期로 발행되는 초록지는 일반적으로 발행빈도가 낮아 속보기능이 약하며, 3년 또는 5년 만에 발행되는 초록지도 있기는 하나 그런 것은 초록지라 부르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발행빈도가 낮은 초록지는 해당 문헌의 이용 기회를 擴大하려는 의도로 발행되는 解題와 사실상 같은 것이다.

한국에서 발행되는 초록지는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는 월간, 격월간, 계간이 14종으로 전체의 19.4%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58종(80.6%)은 연간, 격년간, 부정기 초록지로 발행빈도가 낮고 따라

서 속보성이 약한 것이다. 특히 부정기 초록지가 37종(51.4%)으로 전체의 반을 넘는다는 사실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부정기로 발행되는 초록지는 대체로 발행빈도가 낮아 속보성이 약하고, 또 언제 다음 號가 나올지 豫測할 수 없어 연구자들이 한 분야의 최근동향을 파악하는데 안심하고 의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발행되는 72종의 초록지중 국내에서 발표된 기사를 수록한 것이 55종(26.4%), 외국에서 발표된 기사를 수록한 것이 7종(9.7%), 국내외에서 발표된 기사를 같이 수록한 것이 10종(13.9%)이다. 여기서 국내에서 발표된 記事를 수록한 초록지를 제외한 17종(23.6%)의 초록지에 수록된 記事들도 대개 한국인 또는 한국인의 관심사와 관계가 있는 것이다. 예컨대 論文資料社에서 발행하는 외국박사학위논문초록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취득한 국내 학자의 외국 대학 박사학위 청구논문 초록을 수록한 것이며, 韓國化纖協會에서 발행하는 화섬특허정보초록은 일본 化纖會社들이 등록한 특허중 국내 化纖産業과 관련된 것을 수록한 것이다.

經費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초록기사는 잘 훈련된 專門要員에 의하여 작성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전문요원은 記事作成 指針書에 따라 정확한 언어로, 一貫된 體制와 길이의 초록기사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著者が 작성한 초록기사는 그런 一貫성이 缺如되기 쉽고, 주제분석도 자기 관심과 偏見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쉽고, 또 대부분의 경우 외국어로 쓰여져 그 외국어를 읽지 못하는 독자에게는 사실상 無用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발행되는 초록지중 42종(64.5%)은 그 기사가 著者抄錄이고, 초록지 발행기관이 전문요원을 시켜 自體 作成한 記事는 27종(37.5%)이다. 위의 42종에 수록된 저자초록은 초록지 용으로 따로 작성된 기사가 아니고, 이미 학술잡지기사나 학위논문에 添附되어 있는 초록을 수집하여 대부분 그대로 수록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초록지는 형식상으로나 내용상으로 산만하고 일관성을 缺如한다. 初期 段階에서 제한된 예산때문에 저자초록을 수록하기로 한 초록지라도 그것을 修正하여 收錄하거나 전문요원에 의한 第三者抄錄으로 變換하는 措置를 하여야 할 것이다.

초록지는 속보성이 기본적 요소이므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재래식 편집이나 인쇄방식으로는 초록지의 효율적 발행을 기대하기가 어렵

다. 1960년대에 정보봉사 분야 최초의 電算機 應用 試圖가 초록지와 색인지를 생산할 출판시스템의 開發이었다는 사실은 偶然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오늘날 많은 초록지가 컴퓨터로 통제되는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다. 한국에서 발행되는 초록지는 재래식 편집 및 인쇄방법으로 발행되는 것(42종, 58.3%)과 편집 및 인쇄과정이 전산화된 것(30종, 41.7%)이 거의 半半이다. 아직도 재래식 편집 및 인쇄방법으로 발행되는 초록지가 약간 많기는 하나 최근 전산화를 成就한 초록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계속되리라 예상된다.

끝으로 한국에서 발행되는 초록지의 配布方法에 대하여 살펴본다. 어떻게 配布하느냐에 따라 독자가 초록지를 쉽게 入手할 수도 어렵게 入手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포방법에 대한 論議는 중요하다. 초록지가 판매되고 값이 비싸면 돈이 없는 사람이 입수할 수 없는 短點이 있기는 하지만 잘 조직된 전국 書籍販賣商을 통하여 潛在的 讀者層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져서 존재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은 적다. 한편 無料로 배포되는 초록지는 配布 對象者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나 기관에는 露出되지않아 존재를 認知하기 어려운 短點이 있다.

한국에서 초록지를 발행하는 기관은 非營利機關인 연구기관이 대부분(75.0%)이고 출판사는 소수(7.0%)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다. 초록지 발행에 있어서 상업출판사의 役割이 이렇게 약하다는 사실이 示唆하듯이 판매되는 초록지는 7종으로 전체의 약 10%에 지나지 않는다. 즉 한국에서 발행되는 초록지의 대부분(65종, 90.3%)은 발행기관이 선정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무료로 배포된다. 이런 상황에서 초록지의 이용을 極大化하려면 무료로 배포되는 초록지를 全國的으로 수집하여 그 목록을 정기적으로 잠재적 초록지 독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Ⅶ

본 고에서는 한국에서 발행되는 초록지의 일반적 특성을 밝히려고 시도하였다. 본 고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여기에 요약해 본다. 첫째, 한국에서는 少數 主題分野에서만 국내 연구성과를 速報하는 초록

지가 발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제분야에서 초록지를 통한 초록서비스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초록지가 발행되고 있는 소수 주제분야에서도 그 초록지들이 주제상으로 또는 수록 대상 문헌상으로 매우 세분되어 있어 많은 연구자들이 자기 분야의 국내 연구성과에 대한 초록서비스의 惠澤을 받지 못하고 있다.

둘째, 전문초록지가 발행되지 않고 있는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多少間 도움이 될 종합초록지는 그 대부분이 대학의 학위논문 초록지이고 나머지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형태의 출판물, 특정 기관의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한 연구과제 보고서, 특정 대학 연구소에서 발표된 논문 등의 초록지로 여러 주제분야의 연구성과를 포괄적으로 속보하는 바람직한 성격의 종합초록지가 아니다.

셋째, 한국의 초록지는 대부분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발행되며 출판사, 산업기관, 도서관, 정보봉사기관, 정부기관, 학술진흥기관, 학회 등에서도 발행된다. 소수 기관이 많은 종 수의 초록지를 발행하며, 다수 기관이 1종 또는 2종의 초록지를 발행한다. 많은 종 수의 초록지를 발행하는 기관중 대부분은 대학과 연구기관이다.

넷째, 한국에서 발행되는 초록지의 종류 가운데 학위논문 초록지가 가장 많고 다음이 연구보고서 초록지, 학술잡지기사 초록지, 특히 초록지의 순이다. 학위논문 초록지가 많이 발행되는 주요 이유는 각 대학이 수여한 석사·박사학위 청구논문에 대한 초록지를 따로 발행하는 慣行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느 한 출판기관이 전국의 학위논문을 수집하여 하나의 종합 학위논문 초록지를 발행하고 原文複寫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한국에서 발행되는 많은 초록지가 연구기관이 해당 기관에서 이루어진 연구성과를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그 수록범위가 제한되어 유용성이 적다. 이 연구기관들이 현재의 세분되고 제한된 내용을 담은 초록지를 해당 분야의 모든 연구성과를 包括적으로 담은 초록지로 擴大 改編하는 일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한국에서 발행되는 초록지의 종 수는 지난 25년간 5년 마다 100% 안팎의 높은 비율로 계속 증가하여 왔다. 終刊된 초록지중 대부분은 創刊 後 2년 내에 종간되었고 創刊號만 내고 종간된 초록지도 반이나 된다.

일곱째, 한국에서 국내용으로 발행되는 초록지의 바람직한 언어는 한국어이나 실제로 한국에서 발행되는 초록지중 절반이 한국어로 되어 있고, 나머지 반은 외국어로 된 것과, 한국어와 외국어를 混用한 것이다. 외국어 초록지는 1종의 일본어 초록지를 제외하면 모두 영어로 된 것이다.

여덟째, 한국에서 발행되는 초록지는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는 격주간, 월간, 격월간, 계간이 전체의 약 20%이고 나머지는 연간, 격년간, 不定期 초록으로 發行頻度가 낮고 따라서 속보성이 약하며, 後者中 부정기 초록이 전체의 반을 넘는다는 사실은 특히 바람직하지 않다. 초록지의 대부분은 발행기관이 選定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무료로 배포되고 약 10%의 초록지만이 販賣된다. 초록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무료로 배포되는 초록지를 전국적으로 수집하여 그 目錄을 정기적으로 잠재적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아홉째, 최근 電算化된 방법으로 편집, 인쇄되는 초록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되어 早晚間 재래식으로 만들어지는 초록지는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전산화는 단지 초록지 발행의 기술적, 능률적 개선을 의미하지 않고 副産物로 얻어지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새로운 전문초록지를 발행하고 데이터베이스 검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이에 대한 研究와 對備가 필요하다.

參 考 文 獻

- 최성진. 우리나라의 초록시스템-현황, 문제 및 개선방향. 한국비블리아. 1984; 6: 133-60.
- 최성진. 한국의 초록서비스에 대하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994; 6: 9-51.
- Borko, H; C.L. Bernier. *Abstracting Concepts and Methods*. New York: Academic Press, 1975.
- FID. *Abstracting and Indexing Services*. FID News Bulletin: 1974; 24: 3-4.
- Keenan, S.V.; M. Elliot. World Inventory of Abstracting and Indexing Services. *Special Libraries*. 1973; 64: 145-50.

ABSTRACT

Som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Abstracting Journals Published in Korea

Sung Jin Choi*

This paper attempts to define som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Abstracting Journals published in Korea as evidenced in those published during last ten years. This purpose is achieved by comparing the results of the two studies conducted by the author in 1984 and in 1994. Both studies were conducted to present the state of the art in the abstracting services in Korea. The major conclusions made in this paper are summarised as follows :

(1) Researchers and professionals working in a small number of subject fields are benefited by the abstracting journals, which provide current-awareness services of recent achievements in research and development in Korea. Those in most of the fields have no abstracting journals of their own, and naturally they have no substantial abstracting services. Even many researchers and professionals in the fields that have some abstracting journals are not informed of research results in their fields because the abstracting journals are scattered in many narrow subjects and in many cases, the abstracting journals only cover publications in some specific forms and kinds.

(2) Abstracting journals that cover more than two subject fields, which are supposed to be of more or less help to the researchers and professionals in the subject fields that have no abstracting journals published in their fields, have rapidly increased in number in the past ten years. Most of such abstracting journals carry thesis and dissertation abstracts, and the rest, those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specific places, in specific forms, by specific institutions, and of

reports of research projects sponsored by specific foundations. These abstracting journals are not of the kind that comprehensively provide researchers in related fields with current awareness of publications of research results in Korea.

(3) Most of the abstracting journals existing in Korea are published by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es, and the rest, by commercial publishers, industrial firms, libraries, information centres, government agencies, research foundations, learned societies, etc. Those which publish many titles are small in number and those publish one or two titles are large in number. The former is largely made up of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es.

(4) The abstracting journals published in Korea are classified by type into those of dissertations, research papers, journal articles, patent specifications in that descending order. The fact that Master and doctoral dissertation abstracts are dominating in Korea is due to the irrational practice of publishing those abstracts at many different institutions.

(5) Most of the abstracting journals existing in Korea are published by national or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in order to publicise their own research outputs. Their coverage of literature is normally narrow, and naturally their value to users is limited.

(6) Korean is the desirable language for the abstracting journals intended to be distributed within Korea. About half of the abstracting journals published in Korea is printed in Korean and the other half, in foreign languages, and in Korean and in foreign languages together. All the abstracting journals in foreign languages are printed in English except one, which is printed in Japanese.

(7) Some twenty per cent of the the abstracting journals in Korea is published monthly, bimonthly, and quarterly. The others are published annually, biannually, and irregularly. The latter may not function properly as a current-awareness tool due to long intervals

between their issues. It is particularly undesirable that about half of the abstracting journals in Korea is published irregularly. Most of the abstracting journals published in Korea are distributed freely to individuals and institutions selected by the publishers.

(8) The abstracting journals published by the use of computers increased drastically in the past ten years. The abstracting journals produced by the conventional type-setting method will possibly disappear in Korea in another ten years to come. Automation of the production of abstracting journals does not simply mean technical, economic improvement in publishing processes but availability of machine-readable databases that can be used for many other purposes, including generation of other bibliographical publications and provision of machine literature searching capabilities. Necessary steps should be taken for this important development immediately.

* Professor of information studies, Sung Kyun Kwan University